

고전 서사문학 영역(英譯)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정선희*

<차 례>

- I. 머리말
- II. 고전 서사문학 영역의 필요성
- III. 고전 서사문학 영역의 추진방안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우리 고전 서사문학의 영역(英譯)을 통해 외국의 독자들이 한국적 가치관과 우리 문학의 우수성, 고유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 일은 고전 서사문학 전공자가 주축이 되었을 때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역설한 논문이다.

지금까지의 고전문학의 영역은 현대문학이나 고전 시가문학에 집중되어 있고 고전 서사문학 중에서는 몇몇 작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학문이나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외국의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풍속, 법도, 가치관을 전달하고 인간 보편의 소재인 애정, 가족, 삶의 방식, 가난, 탐욕, 허세, 전쟁 등에 대해 공감하고 고민하게 한다는 면에서 고전 서사문학의 영역의 대상을 넓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김시습·허균·박지원 등 최고의 지성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문인들의 소설들과 함께 소외된 문사들의 애정전기소설들, 서민들의 삶의 실상과 염원을 담은 가정소설과 군담소설, 그리고 민중들이 구전으로 향유하던 이야기를 식자층이 채록한 야담집 등을 고루 선정하여 시리즈물로 구성해 보았다.

* 이화여대 국문과 전임강사

또한 정확하고도 적절한 번역을 위해 고전 서사문학의 독창적인 표현, 구체적인 묘사, 주제와 문제의식,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가 지니는 함의와 상징성, 전고가 있는 구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번역 작업에 있어서의 고전 서사문학 전공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영역자와 긴밀하게 공조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상 작품 선정이나 영역의 대상 저본이 되는 현대역본의 선정, 주해의 적절성 판단, 호칭 등 단어의 통일성 조율 등의 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문학의 영역 작업은 영문학계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고전문학계에서 할 일이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고전 서사문학, 고전소설의 영역, 영역, 번역, 주해, 영역본, 외국 독자, 해외 전파

I. 머리말

우리의 문화적 전통은 멀리 신화시대의 유산부터 시작하여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최근에는 종묘제례, 강릉 단오제와 더불어 판소리가 유네스코의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이 점차 높아지면서 우리의 문화전통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문학을 읽고자하는 욕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읽힐 만한 번역서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문화의 해외 전파에 큰 난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세계화되어 국가 간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문화의 교류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때에 외국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의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¹⁾

1)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한국학고전라이브러리 100선 영

한국적 정신은 많은 유형과 무형의 문화에 살아남아 있으며, 특히 고전 문학작품들에 그러한 문화적 전통과 한국적 가치관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물론 사상서나 역사서를 통해서도 이들을 알 수는 있겠으나 거대담론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 분야에서는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이나 <삼국사기>, <왕오천축국전> 등의 영역본이 이미 출간되었거나 출간 예정으로 되어 있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학의 경우, 우리 민족 고유의 풍속이나 생활과 같은 일상의 모습, 가치관, 갈등 양상, 관계망 등이 더욱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작품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어떤 고전문학 작품이 남아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며 <춘향전> 정도의 작품명을 알거나 읽어보았을 뿐이다. 그나마도 축약 형태의 번역본이거나 유교주의의 세례를 강하게 받은 이본의 번역본을 읽은 경우가 많아 우리 고전문학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 고전 서사문학의 영역(英譯)을 통해 외국의 독자들이 한국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인식하고 우리 문학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고전 문학의 외국어 번역은 영역(英譯)과 불역(佛譯)이 주를 이루고 있다.²⁾ 그 중에서도 영역은 비교적 다양한 장르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시조와 한시 같은 시가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³⁾ 우리 고전

문번역 지원사업을 공모하였다. 본고의 논의도 이에 촉발되었으며, 영역을 제안하는 작품들도 이 리스트 100권 중에서 선택해 보았다. 이 리스트에서는 문학 분야로 38종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들이다. 이에 필자는 서사문학 분야 중 각 하위 장르별로 대표성을 띄는 작품들로, 비교적 정확하고 읽기 쉬운 한국어 현대역본이 출간되어 있는 것이 우선 번역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리즈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하도록 한다.

2) 김홍규 편, 『한국문학 번역서지 목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8.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조’의 형식이 다른 나라의 문학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문학 장르 중에서 가장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생활과 의식세계를 잘 보여주는 고전소설의 영역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⁴⁾ <임경업전>, <구운몽>, <춘향전>, <홍길동전> 등이 영역되었고 연암의 소설 몇 편이 영역되었지만, 800여 종에 달하는 고전소설 작품 수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수이다.⁵⁾ 또한 이들 영역본이 비교적 충실하게 번역된 책들이기는 하지만, 대상본의 선택이라든지 미묘한 문맥 파악, 고유문물과 생활풍습의 전달, 문체나 운율의 전달, 속담·관용구·고유명사 번역 등의 면에서는 다소 보완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⁶⁾를 받고 있다.

이에 필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미학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

것이라고 하여 한국문학의 영역 시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박진임,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번역의 문제: 시조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8권 1호, 2007, 봄. p.153.

- 4) 장효현, 『한국 고전소설 영역의 제 문제』,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 출판부, 2002. p.704. : 오윤선, 「<허생전>의 영역본을 통해 본 한국 고소설 영역의 문제」, 『고소설연구』 17집, 2004. 6. pp.195-202. : 오윤선, 『한국 고소설 영역의 양상과 의의』, 고려대 박사논문, 2005. pp.11-19. 특히 오윤선은 한국 고전소설의 영역의 역사를 3기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3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의 특성을 외국의 한국문학자들에 의한 외국출판이 늘기는 했지만 주로 현대문학작품들이어서 고전소설의 영역의 경우에는 침체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필자가 파악하기로 2007년인 현재도 비슷한 상황이다.
- 5) 정확하게 말하면 총 27편이 영역되었는데, 작품명을 들면 다음과 같다. <구운몽>, <배비장전>, <사씨남정기>, <심청전>, <장끼전>, <장화홍련전>, <전우치전>, <양반전>, <열녀함양박씨전>, <허생전>, <호질>, <옹고집전>, <운영전>, <이생규장전>, <이춘풍전>, <인현왕후전>, <임경업전>, <임진록>, <장끼전>, <장화홍련전>, <춘향전>, <공쥐팔귀전>, <토끼전>, <한중록>, <황새결승>, <홍부전>. 오윤선, 「<춘향전> 영역본의 고찰-삼입시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3집, 판소리학회, 2007. 6. pp.401-402. 참조.
- 6) 장효현(앞의 논문)은 <홍길동전>, <구운몽>, 연암소설의 영역본의 문제점들을 살폈고, 오윤선(앞의 논문들)은 <구운몽>, <홍길동전>, <허생전>, <양반전>, <이생규장전>, <춘향전>, <한중록> 등 14종의 작품들의 영역본의 문제점을 살폈다.

는 소설 장르를 중심으로 하여 단형 서사체인 아담을 포함한 ‘고전 서사문학 시리즈⁷⁾’의 영역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고전 서사문학 영역의 필요성

1.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미학을 담은 서사문학의 번역

외국의 독자들은 대체로 우리의 학문이나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고전문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 파급하기 위해서는 흡입력이 가장 큰 이야기 문학을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즉 애정, 가족,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 가난, 전쟁, 탐욕, 허세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서사문학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 고전의 번역에 박차를 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역사서나 사상서를 읽기 힘들어하는 독자들 도 ‘이야기’는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읽을 것이므로 우리의 서사문학 독서를 통해 우리 민족의 풍속 및 법도, 예의와 도리, 가치관 등 일상적인 면들을 실감나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외국 독자들에게 우리 서사문학의 다양성과 문학성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김시습, 허균, 박지원 등 최고의 지성을 지녔던 문인들의 소설들과 함께 소외된 문사들의 애정전기소설들, 서민들의 삶의 실상과 염원을 담은 가정소설과 군담소설, 민중들이 구전으로 향유하던 이야기를 채록한

7) 시리즈물로 10권의 책을 선정하려 하는데, 이렇게 시리즈로 영역할 것을 제안하는 까닭은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영역을 위해서이다. 이 때의 책 선정은 매우 중요한데, 오윤선(앞의 논문, 2004.)도 한국 고전소설 영역의 문제점 중 하나로 몇몇 작품에 한정된 중복 번역을 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전문학 전공자가 문학사에서 가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야담집 등을 고루 선정하여 시리즈물로 구성하여 영역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고전 서사문학 영역 시리즈의 대상 작품으로, <금오신화>, 애정전기 한문소설선; <주생전> · <위경천전> · <최척전> · <상사동기>, 연암 박지원의 한문소설, <홍길동전>과 허균의 한문 소설, <이고본 춘향전>, <장화홍련전>과 <박씨전>, <삼설기>, <어면순>, <어우야담>, <청구야담> 등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⁸⁾ <금오신화>나 애정전기소설들, 허균과 박지원의 한문소설들을 통해서 독자들은 작가가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한문 문화권 내에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소설을 창작해 내고 자신들의 사상과 철학을 담아내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판소리의 발달함과 축제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이고본 춘향전>을 통해 우리 민중들의 해학과 흥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장화홍련전> · <박씨전>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여성들의 애환, 전쟁의 상처를 위로하는 방식 등에 대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삼설기> 같은 단편소설집이나 <어우야담> 등의 야담집을 통해서 선비들의 인생관이라든지 인간 본성에 대한 치밀한 탐구, 당대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평가 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독자들이 이 책들을 읽는다면 조선 후기의 인간과 사회에 대해 매우 흥미롭고 수월하게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정확한 번역과 적절한 주해를 갖춘, 가독성 있는 독서물의 마련

번역은 단순히 한 가지 문자 기호를 다른 문자 기호로 옮기기만 하는 작업이 아니다. 작품의 주요 주제는 물론이요,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는 정신과 문화도 함께 다른 언어로 옮겨놓는 작업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를 통

8)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Ⅲ. 1. 영역 대상 작품의 선정' 항목에서 하도록 한다.

해 언어의 장벽을 넘고 시대의 장벽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기도 하며 세상을 바꾸는 힘까지도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도 정확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동적(動的)인 번역,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갖춘 번역, 의미·형태·분위기·문체 등이 제대로 전달되는 번역⁹⁾을 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고전 서사문학 번역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과 수준 높은 문학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우리 고전 서사문학의 독창적인 표현, 진솔한 생활과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인물들의 입체성 등을 최대한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는 결코 수월하지 않다. 번역 대상인 고전서사문학들은 비록 현대에 한글로 번역해 놓은 상태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깊은 문제의식이라든지 주제의식,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의 함의와 중의성, 다른 고전 문헌에서 차용한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깊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번역하면서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주해(註解)를 달아, 외국의 독자들이 우리 문학의 이야기 구조와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미학적 특질과 문화적 기반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해’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통해 본문의 가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번역자가 텍스트에 폭넓게 참여하여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¹⁰⁾

9) 박진임, 앞의 논문, p.154.

10) 최경열(「한문번역에 대한 몇 가지 견해: 『한비자』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은 한문 번역에 있어서 원전 충실성뿐만 아니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주석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번역서에서는 주석을 원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장으로 주로 사용했기에 독자와의 소통을 저해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또한 원전에 존재하는 착간(錯簡)을 바로잡거

이렇게 외국어로 작품을 번역할 때에는 원작의 정확한 전달과 더불어 번역물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 언어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서투른 번역은 오히려 원작의 질을 떨어트려 우수한 작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에¹¹⁾ 번역의 오류를 줄이고 적합한 주해를 완성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 연구 인력들이 모여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오류 없는 정확한 번역과 적절한 주해가 완성되어야 해외의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독서물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을 위해 국문학계의 고전 문학 연구자들과 함께 숙련된 영문 번역자들,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한국학을 연구해온 학자들이 모여 공동 작업¹²⁾을 할 필요성이 있다.¹³⁾

Ⅲ. 고전 서사문학 영역의 추진방안

1. 영역 대상 작품의 선정

한국의 고전 문학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적·정신적 근원을 가장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 설명해 줌으로써 독자의 좌절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문맥상 군더더기라고 여겨져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서도 당시의 문화나 풍습을 설명해 주어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해의 역할은 우리 고전문학의 영역 시에도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다.

11) 기존의 번역물들 중에는 우리 문학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용렬하게 비취지게 할 만큼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것들도 꽤 있다고 진단되기도 하였다. 이성일, 『우리 고전 번역의 필요성』, 『민족문화연구』 31집, 1998.

12) 공동작업의 필요성은 앞에서 거론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영역 사업 공고에도 반영되었던 바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아직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발표된 사업 선정 명단에는 외국 대학의 연구소만 있을 뿐이었다.

13) 구체적인 논의는 ‘Ⅲ. 2. 영역의 방법과 추진 방안 모색’에서 하기로 한다.

그 영역이 광범위하므로 효율적인 영역(英譯)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운문 영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번역의 성과물이 더 적은 산문 영역을,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인의 구체적인 삶과 의식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르인 소설과 야담을 중심으로 ‘고전 서사문학’ 시리즈를 기획해 보았다.¹⁴⁾ 한국인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문화를 담은 고전이면서, 번역되어 해외에 소개되었을 때 해외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 상정한 독자층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한국학 전공자를 가장 크게 염두에 두었다. 외국이, 그것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고전문학을 영어사용권의 일반 대중이 선택하여 독서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전문 연구자들을 위한 영역본을 출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후 이들 전문 연구자들이 그곳 일반 독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출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¹⁵⁾

또한 효과적으로 한국의 고전 서사문학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해 시기적으로는 서사문학의 유산이 가장 풍부한 조선시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면서 다음의 세 범주를 포괄하였다. 먼저, 지식인 작가층에 의해 창작된

14) 지금 이 시리즈물을 제안한다고 해서 바로 영역 작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작품을 선정해 보고 추진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고전서사문학 영역 작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대상 작품을 선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조언해 준 이화여대의 전진아, 탁원정 선생님에게 감사한다.

15) 국내의 경우에도 고전소설을 현대역한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전문연구자(고전문학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을 주된 독자로 삼는 현대역본을 출간하고, 이후 이를 재가공하여 일반 대중을 주된 독자로 삼는 현대역본을 출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독서하는 이유와 기반이 전혀 다른 이 두 부류의 독자를 모두 만족시킬 만한 현대역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현대역본들은 대체로 전문연구자들이 독서하기에 적합한 수준이다. 일반 독자들이 고전소설을 폭넓게 읽게 하려면 이를 재가공하여 좀더 수월하게 읽힐 수 있는 현대역본이 출간되어야 한다.)

상층의 문예물로서의 한문소설, 다음으로는 서민층의 삶과 정서를 대변하는 대중적 국문소설, 마지막으로 여항 시정인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이야기나 여항의 견문을 기록한 야담집이다. 야담집은 한문과 국문 모두에 문맹이었던 사람들, 즉 국문소설보다도 더 저층이었던 사람들의 서사문학적 욕구에 부응하였던 문학 장르이면서 이를 상층의 시각을 통해 읽을 수 있는 장르적 특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작품 선정은 조선 시대의 상하층을 아우르는 서사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각 작품의 특징¹⁶⁾을 영역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① 『금오신화』

『금오신화』는 매월당 김시습에 의해 창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로,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 등 5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신이한 만남과 이별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의 공간 이동 속에서 결국은 비극적인 혹은 허무한 결말로 끝을 맺는 전기소설(傳奇小說)의 전범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다른 고소설들이 대체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인물 또한 그러하다. 이처럼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 이외에도 본격적인 전기소설의 시대를 연 작품이자, 조선이라는 배경 설정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고전 서사 문학의 영역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대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애정전기소설선: <주생전> · <위경천전> · <최척전> · <상사동기>

16) 이하, 각 작품의 특징을 논하는 부분은 기존 연구들을 두루 참고하여 서술하였지만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기로 한다.

15세기의 『금오신화』를 통해 고전 소설의 주요 유형 혹은 장르로서 전개된 전기소설은 17세기에 와서 애정이라는 모티프가 강화되면서, 더욱 탐미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띠게 된다. 그러면서도 귀신과의 만남이나 비현실 공간 체험과 같은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성격은 약화되고 인물들의 현실 속에서의 만남이 주가 되는 현실적 성격이 강화된다. 이러한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은 애정이라는 대단히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번역되었을 때 독자층에 대한 강한 흡인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조선의 서사문학사를 거칠게 구분하였을 때 중반기의 한문소설을 대표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주생전>, <위경천전>, <최척전>, <운영전>, <상사동기>는 바로 그러한 17세기 애정 전기소설을 대표하는 작품들인데, 이 가운데 <운영전>은 기존의 영역본이 있고 또 새로운 영역본이 곧 출간될 예정이므로¹⁷⁾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연암 박지원의 소설

실학자이자 문장가인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이 조선 후기의 문단을 대표할 만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한문소설들을 모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열하일기>(연암집 11권-15권)와 <방경각외전>(권8)에 <양반전>, <허생전>, <호질>, <마장전>, <예덕선생전>, <민옹전>, <김신선전>, <광문자전>, <우상전>, <역학대도전>, <봉산학자전>, <열녀함양박씨전> 등 12여 편의 한문소설들이 실려 있다. <허생전>, <양반전>, <호질>, <열녀함양박씨전> 네 편이 이미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암 소설의 다양성과 문학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묶어 출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들 작품들은 당대의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나타

17) 같은 이유로 본 시리즈 구성에서 제외한 작품이 <구운몽>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목록에 의하면, 하인즈 인수 펜클이라는 번역자가 현재 영역 중이라고 한다.

나는 부조리와 모순, 허위식 등에 대한 작가의 통렬한 비판 의식과 풍자적 기법이 교묘히 접합된 소설로서 조선 후기 풍자소설의 대표작이자 독보적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④ <홍길동전> · 허균의 한문소설

<홍길동전>은 우리 문학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영웅 일대기의 구조에 연산군 때의 실존인물이었다는 민중 영웅 홍길동과, 임궫정 · 서얼 이몽학 등을 통합하여 소재로 삼은 작품이다. 고귀한 혈통의 인물이 비정상적인 출생을 하였으나 비범한 지혜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어려서 위기를 겪지만 이를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영웅 일대기의 구조를 소설에서 최초로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 홍길동이 천부적인 힘과 도술을 지닌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금오신화> 이후의 전기적(傳奇的) 성격을 탈피하고 비로소 완전한 소설의 형태를 갖추었기에 최초의 본격적인 국문소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홍길동전>의 작자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허균 창작설이 가장 유력하다. 허균은 <호민론(豪民論)> · <관론(官論)> · <정론(政論)> · <병론(兵論)> · <유재론(遺才論)> 등에서 민본사상과 국방정책, 신분계급의 타파 및 인재등용과 봉당배척의 이론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한문으로 된 전(傳) 작품들을 통해 숨겨진 인재, 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홍길동전>¹⁸⁾과 함께 <엄처사전>, <손곡산인전>, <장산인전>, <남궁선생전>, <장생전>과 같은 허균의 한문소설들을 함께 묶어

18) <홍길동전>처럼 이본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판본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현전하는 <홍길동전>이 허균 당대의 원작으로부터 상당한 첨가가 이루어진 적층문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구술적 전통이 우세하며 풍부한 디테일과 함께 사회의식이 고양된 면모를 보여주는 완판본을 번역 텍스트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장효현(앞의 논문, p.711.)의 논의를 참고하여 완판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영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이고본 춘향전>

<춘향전>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17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애독되고 있다.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기생 춘향과 기생 아녀 춘향의 갈등을 통해서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난 인간적 해방을 이룩하고자 한 작품이다. 자아의 신장과 꿈의 형상이 조선 후기 민중들에게 갈구되던 새로운 시대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열렬히 환영받았다. 춘향과 이몽룡의 계급을 초월한 사랑과 신의, 그 당시 봉건윤리에 합치되는 춘향의 열녀적인 행실이 민중의 공감대를 얻었고, 변학도와 같은 특권 계급층의 전횡(專橫)을 응징하는 이몽룡의 모습 등이 양반은 물론, 하층민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는 국민문학적 요소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춘향전>은 몇 차례 영역되기도 하였지만 그 대본이 주로 <열녀춘향수절가>였다.¹⁹⁾ 춘향전은 100여 편에 이르는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는 소설인데, 그 이본마다 특색이 있다. <열녀춘향수절가>는 19세기말에 향유되던 이본으로 춘향의 열절이 강조된 작품이다. 이 작품이 근현대에 이르러 가장 많이 읽힌 이본이기는 하지만, 소설 <춘향전>의 저본이라고 할 수 있는 판소리 <춘향가>의 축제적 분위기와 골계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고 민중들의 해학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는 <이고본 춘향전>(필사 및 저작 연대는 1900년경으로 추정)이 영역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판소리’는 2003년에 유네스코의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예술이

19)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춘향전> 영역본은 총 12종이 있다. 그 중 4종은 판소리 공연 시의 보조자료로서의 성격이 짙으므로 제외한다면 8종이 있는 셈인데, 이 중 6종이 <열녀춘향수절가> 또는 완판계열을 영역한 것이다. 오윤선, 앞의 논문, 2007. pp.402-406. 참조.

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관심도 지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판소리의 미학이나 유머 등 장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⑥ <장화홍련전> · <박씨전>

<장화홍련전>과 <박씨전>을 함께 영역 대상으로 넣은 이유는 조선의 아녀자들이 가장 즐겨 읽던 국문소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장화홍련전>은 소위 ‘가정소설’ 유형에 속하는데, 이 유형은 17세기 후반에 처음 출현한 이래로 성별을 초월한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 소설시대를 여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가정소설은 한마디로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아래에서의 문제적 가족구성에서 기인된 가족갈등이 서사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소설’로 정의된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갈등은 크게 ‘처-첩(처) 갈등’이나 ‘계모-전처자식 갈등’을 말하며, 이러한 양반의 축첩에서 파생되는 갈등 상황들이 가정의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한계를 문제 삼고 작품을 통하여 가정은 영에 가장 문제성 있는 인물들을 작중 인물로 등장시켜 가부장적 양반사회의 병폐를 폭로한 소설들이다. 그 중에서도 <장화홍련전>은 후처제(後妻制) 하의 ‘계모-전처 자식’ 간의 주도권 다툼 문제를 다룬 소설로, 흔히 ‘계모형 소설’로 분류된다. 이는 후대에 <김인향전> 등의 많은 모방작들을 남겼으며, 특히 오늘날 영화 <장화 홍련>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다음으로 <박씨전>은 소위 ‘군담소설’로 분류되는 작품이다. 군담소설은 전쟁을 통해서 주인공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담고 있는 작품군인데, 이 작품의 특징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가정적 갈등을 먼저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하여 전공(戰功)을 세우는 이야기로 마

무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색이었던 박씨가 이시백과 혼인하여 피화정에서 지내던 중 혼인한 지 13년 만에 친정에 다녀온 후 추한 허물을 벗게 된 박씨가 절대가인, 요조숙녀가 되고 신통력도 점점 커져 병자호란 시에 남편 이시백과 조선의 장수 임경업 등을 도와 호적들을 몰리친다는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여성독자들은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이며, 남성을 포함한 모든 독자들이 실제 겪었던 병자호란에서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 놓은 통쾌함으로 위안을 느꼈을 것이다. 저작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17세기부터 읽혔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인기를 누린 듯하므로 대상으로 선정한다.

⑦ 『삼설기』

『삼설기』는 방각본으로 출간되었던 국문 단편 소설집이다. 최초의 방각본 소설로 1848년부터 간행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일찍 형성된 작품이면서 독자도 많이 확보했던 작품으로 판단되므로 선정하였다. 9편의 단편이 한 데 묶여 있지만, <오호대장기>, <서초패왕기>, <삼사황입황천기>, <삼자원종기> 등이 애독되었으며 이들은 현대역 되어 있기도 하다. 이 소설들은 대체로 설화, 한문단편, 가사 등에 근원을 두고 발전되었다고 생각되며, 주제 상으로는 입신양명보다는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원하는 변모된 선비사회의 행복관, 강자들의 경화된 권위의식과 허세에 대항하는 약자들의 실력과 논리, 부패된 사회상과 인간성의 결점에 대한 풍자, 인간 본연의 정리(情理)에 충실할 것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사소하고도 평범한 인간상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보편적 진실을 탐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이전의 고전소설의 주류를 이루었던 군담소설이나 애정소설 등에서는 볼 수 없었던 치밀한 인간성 탐구의 결과를 함축하게 되

었다고 생각된다. 이들에게 보이는 삶에 대한 인식태도는 서민의식의 성장을 보이며 봉건적 세계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모습을 보인다는 면에서 특징적이다.

⑧ 『어면순』

연산군 때의 송세림(宋世琳)이 편찬한 것으로, 남녀의 성희를 노골적이며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남녀의 호색을 풍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고금소총(古今笑叢)』에 들어 있다. 저자가 만년에 은거해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보이며, 아우인 송세형의 서문과 정사룡의 발문을 참고하면 대략 1530년 전후에 편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잠을 막아주는 방패’라는 뜻의 제목답게 저자가 마을에서 들리는 이야기 가운데 잠을 쫓을 수 있는 것을 수록해 지었다고 한다. 이렇게 한 의도는 단지 웃는 데에만 있지 않고 세상인심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후 성여학의 『속어면순』 등과 같은 아류들이 많이 지어졌다는 면에서 소화집(笑話集)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⑨ 『어우야담』

1622년 어우당(於于堂) 유몽인(柳夢寅)이 지은 한국 최초의 야담집으로, 전대(前代)의 필기(筆記)·잡록(雜錄)류의 전통을 이으면서 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야담문학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야담은 한국 고전문학사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학 장르로, 당시 시대정신의 중요한 변화를 다채로우면서도 현실감 있게 반영하고 있다. 저자는 문학적인 흥미를 지니면서도 역사 기술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기록하여, 독자들이 세상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려는 교훈적 의도를 살리기도 하였다. 흔히 민간에 유포되어 있던 음담패설이 아닌

풍자적인 설화와 기지가 있는 야담들을 담고 있어 조선 중기 서사문학의 좋은 자료이다. 왕실·귀인에서 상인·천민·기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의 삶과 시문에 얽힌 사연, 꿈·귀신, 풍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기록한 설화문학이기에 대상으로 선정한다.

⑩ 『청구야담』

한문 단편을 비롯한 민담, 전설, 소화(笑話), 일화(逸話)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야담집으로 1840년경에 편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의 야담류 문헌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으며, 편찬자는 미상이다. <어우야담>과는 달리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 지배층 내부의 부패와 모순, 몰락양반의 비참한 현실, 신흥부자의 대두, 지배층에 대한 하층의 항거, 자유분방하고 생기발랄한 시정 풍속,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윤리관 및 가치관의 형성 등의 사회상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무너져 가는 봉건 사회와 변화하는 피지배계층의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높은 문학적 안목으로 비교적 문예성이 높은 야담만 선별해 이야기 하나하나에 일관된 방식으로 제목을 붙여 놓고 있어서 한국 야담문학의 최고 수준을 보여준다고 평가되기에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영역의 방법과 추진 방안 모색

위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역 작업을 할 때에는 기존의 고전문학 영역에서 나타났던 여러 문제를 고려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적절한 번역 대본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원전에 대한 텍스트 비평이 필요하다. 고전 서사문학의 경우 작가가 분명한 현대 문학작품과 달리 적층문학의 성격을 강하게 띠며, 작가가 분명히 밝혀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수종의 이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을 대본으로 삼는 것이 원전의 참모습을 알리는 데 적합한지의 문제가 번역에 앞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본이 다수 존재하는 작품들의 경우에 필수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필자는 앞 절에서 이를 감안하여 번역 대상 작품들을 선정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 <춘향전>의 경우 많은 이본들 중에서 가장 판소리적 색채와 골격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고 민중들의 해학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는 <이고본 춘향전>을 선정하였다. <홍길동전>의 경우에도 구술적 전통이 우세하며 풍부한 세부 묘사와 함께 사회의식이 더욱 고양되어 있는 완판본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원전 중 어떤 텍스트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는 이를 현대역 또는 국역해 놓은 다수의 출판물에 대한 비평이 필요하다. 이들 중에서 원전의 작품성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적절한 주해²⁰⁾를 갖추고 있는 현대역본이나 국역본

20) 주해의 적정성은 번역의 저본 결정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 번역에 있어서도 독자의 수준과 성향에 맞춰 수위를 조절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고전문학 전공자와 번역자의 빈번하고 지속적인 의견 교환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아무리 잘 번역된 고전의 현대역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독자를 예상하고 현대역한 책이므로 이를 그대로 영역한다면 불필요한 주해가 들어간다거나 필요한 주해가 누락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자의 주체적인 판단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이생규장전>의 최씨녀가 사는 곳은 '선죽리'이다. 이를 번역의 저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현대역본에서 찾아보면, 각주가 "선죽리는 개성 선죽교 부근에 있던 마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선죽교는 좌견리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라고 붙어 있다. 이를 그대로 영역하는 것은 외국의 독자들에게 그리 효과적으로 읽히기 어렵다. 선죽교가 들어보지도 못하던 좌견리 북쪽에 있다는 옛 책의 구절을 써주기 보다는 오히려 선죽교에 얽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여 작품 속 최씨녀의 성격과 연관되는 공간 설정임을 알려 주는 것이 적절하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대다수의 국어 현대역본에서는 '이생', '허생' 같은 호칭에 대해 주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역을 할 때에는 '생(生)'의 처리에 늘 고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고전소설에서의 호칭의 관행에 대해 한 번 주해로 설명해 준 후, 'Yi Saeng'이라고 쓰든지, 이생의 경우에는 독신의 젊은 남자라는 의미가 강하니 'Mr. Lee' 정도로 옮기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어떤 역자는 'Student Lee'라고도 했으나 어

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고전 서사문학의 원전 비평이나 현대역본 비평을 정밀하게 하는 일은 고전 서사문학 전공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번역팀에는 반드시 국문학계의 고전문학 전공자들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그것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 대본을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번역서들이 번역자 개인의 선호도에 의해 대상 작품이 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문학이 해외에 소개될 때 어떤 편향성을 띠게 되었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한국문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면서 번역해야 한다. 번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누가 번역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시리즈물을 기획하여 많은 양을 번역할 때에는 공동연구진을 구성함으로써 개인이 번역에 임할 때에는 다른 장점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으로는 우선 영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담당하는 번역자들이 필요하다. 우리 문학의 외국어 번역은 한국인이 하는 것보다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해야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했지만, 실상 더 중요한 사항은 과연 원작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면서 이를 다른 언어로 되살려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²¹⁾ 따라서 영문 번역자로는 반드시 한국학에 대한 소양이 있으면서도 영어 구사능력을 함께 갖춘 이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에서 강조했듯이 고전 서사문학 전공자들이 필요하다. 명확

색하다. 이 문제는 기존 영역본의 문제점으로 늘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므로 합의점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렇게 번역자는 번역의 저본이 되는 현대역본의 주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재가공하는 일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므로 고전서사문학 전공자의 역할은 지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 이성일, 앞의 논문, pp.318-319.

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그 개념이 확실한 텍스트들과는 달리, 모호성을 하나의 특징으로 하는 문학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번역을 하는 데 있어 외국어 지식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의 고전문학은 사실 현대의 독자들에게 외국 문학을 접할 때와 비슷한 정도의 이질감과 독해의 어려움을 안겨 준다. 이런 이질감과 어려움은 고전문학의 원전을 대할 때에 더 크게 느껴질 테지만 현대역본이나 국역본을 읽을 때에도 어느 정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한국 고전문학의 번역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외국어 구사 능력 쪽의 문제보다는 작품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선지식의 부족이나 우리 문학 고유의 운율이라든지 양식적 특성, 전고(典故)나 상용구의 해석 등이 미흡하여 발생한 오류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번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전문학 전공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수적인 것이다.²²⁾

이렇게 영문 번역자와 고전서사문학 전공자의 공동연구진을 구성함으로써 한 개인이 동시에 갖추기 힘든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소양과 영어 구사 능력을 구비하게 되어 더 완성하고 적절한 번역물이 나올 수 있을

22) 사실, 뛰어난 영문 번역 실력과 우리 고전 서사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모두 갖춘 번역자들이 확보된다면 가장 수월하게 진행되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는 번역자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이 같은 이유로 오윤선(앞의 논문, 2004, p.220.)도 공동 작업을 제안했었다. 필자는 공동 작업뿐만 아니라 고전문학 전공자가 주축이 되어 번역자와 긴밀하게 공조해야만 정확하고도 적절한 번역물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문소설을 한문소설 전공자(한문 독해 실력이 출중한 비전공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가 번역하고 국문 고전소설을 고전소설 전공자(중세 국어 해독 실력이 출중한 비전공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가 현대역하는 것(현재 출간된, 잘 번역되었다고 평가되는, 독자들에게 호응 받는 책들은 거의 이리하다.)이 효과적이며 더 나은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문학의 영역 작업에 대해서는 고전문학 전공자나 한국학 관련 전공자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영문학계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이다. 국내의 고전문학 연구자들이나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이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것이다. 이렇게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효과적으로 공동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반 여건들이 좀더 폭넓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미나나 콜로кви움을 자주 열어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므로 장소와 시간들이 넉넉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이때에 고전 문학 전공자는 번역대상 도서의 관련 자료들과 논문들을 수집하고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자의 원전 이해를 돕고 의문점을 해결해 준다. 또한 번역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 및 표현을 당시의 사회, 문화, 상황적 맥락에서 풀이하여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번역자는 원전의 심층구조, 문체상의 특성이나 미학까지도 번역물로 옮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단계는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의 감수이다. 위의 과정은 주로 국내의 번역자와 고전 전공자들이 수행할 것이므로 외국의 독자들의 작품 이해도와 문화적 성향 등에 대한 고려가 미비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장기간 한국학을 연구하면서 그 곳의 독자들에게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번역물을 읽고 마지막 수정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원전을 ‘정확하게’번역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독자들에게 외면받기 쉽기에 독자의 수준과 취향에 맞는 ‘적절한’번역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런데 외국 독자들의 수준이나 취향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한계를 지니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의 한국학 연구자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단순히 언어 번역상의 오류를 세밀하게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주제적인 면, 시대·공간적인 배경에 대한 면, 독자층의 흥미와 감동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 등 다각적으로 감수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 감수자는 영역본이 출간된 이후 독자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외국의 일반 독자들을 위한 재가공물²³⁾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

23) 앞에서 필자는 우선 외국의 한국문학 전문 연구자들을 위한 영역본을 출판하는 것이

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영문 번역자, 고전서사문학 전공자,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면 보다 완전한 최종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필자가 제안하는 ‘고전 서사문학 시리즈’의 영역은 총 10권이나 되는데다가 각 권의 분량도 긴 서사문학이기 때문에 단행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나 시조 등의 번역보다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고전문학의 영역이 대부분 시와 시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서사문학의 경우에는 몇몇 작품에 제한되어 이루어진 것도 위에서 제시한 추진 방법들을 실행에 옮기기 힘들어서였을 것이다. 최근에 고전의 현대역 작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국내 독자들의 고전 독서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화 시대에 맞게 고전의 외국어 번역 작업도 활성화되어 국외 독자들의 한국 고전 독서도 증가되도록 해야 할 때이다.²⁴⁾ 그러나 이 일은 외국문학 전공자들의 번역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며 국문학계 특히 고전 문학 전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일이다. 이러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동 연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구심점이 마련되고 다방면의 대폭적인 지원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적절하다고 하면서, 이후 이들 전문 연구자들이 그곳 일반 독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출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24) 올 해 들어 미국의 명문 대학들에서 한류(韓流) 관련 세미나가 잇달아 열리고 있는데, 11월 17일에는 콜롬비아대 산하 한국학연구소에서 ‘한류: 동아시아 및 세계 속의 한국 대중문화’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고 한다. 물론 이런 행사들은 우리의 대중문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지만 한국의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한국의 현대 문화의 뿌리가 되는 고전문학의 아름다움과 다양함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전 서사 문학의 영역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후,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이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외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를 짚어 보는 것으로 논의를 맺고자 한다.

먼저, 국외적으로는 외국의 독자들에게 그동안 한정적으로 제공되었던 한국 고전문학을 그들의 기호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가벼워 혹은 작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지 못해, 작품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에게 한국 고전문학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언어권의 지명도와 영향력 있는 출판사를 통한 지속적인 출판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편집과 출판의 과정에서도 번역에 참여했던 외국의 한국문학 전문가가 참여하여, 작품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나 작가의 문학 세계를 소개하고 나아가 해당 언어권 문학과와의 관련 양상을 적절히 매개할 수 있다면 외국인들이 훨씬 친숙하고 흥미롭게 작품을 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8·90년대 이후 한국문학 번역이 현대문학에 집중되면서, 한국의 현대문학만을 편식하게 된 외국인들에게 이들 현대문학의 사상적, 문학적 연원이 되는 고전문학을 소개, 보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실, 현대문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 전통적·역사적 맥락을 함께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므로,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의 연계 속에서 현대문학은 물론 한국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대문학 위주로 이루어져 왔던 한국문학 연구에 새로운 쟁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 대학의 교양 과목에서 주로 제공되어 왔던 동서양 고전 목록에 더하여 중국이나 일본의 고전에 못지않게 뛰어난 한국의 고전을 다양

하게 소개하고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학 관련 학과나 과목의 경우 고전문학을 통한 문학 교육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교육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고전 서사문학 영역물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국어 배우기 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2006년에 몽골의 외국어 번역서 전문 종합출판사에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대본으로 한 <춘향전>의 몽골어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몽골인들을 위한 어학교재로 활용될 측면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기획한 고전 서사문학 시리즈의 대상 작품들은 특히 서민의 언어만이 아니라 상층의 세련된 언어까지 경험할 수 있어 어학교재로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외국에서의 기대효과 이외에 국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한국 문학, 특히 고전문학 분야의 전문적인 영어 번역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연구 분야만이 아니라, 번역 분야에서도 시대별, 장르별로 전문적인 번역가가 양성되고 그것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되었을 때에야 좀더 완전한 번역이 가능해질 것이고 장기적인 고전문학의 번역과 세계적 전파도 가능할 것이다. 이 시리즈물의 번역서가 이후 한국 고전문학 영역에 있어서의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번역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경우 그동안 고전문학 영역 시에 부딪혔던 용어의 선택과 통일의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 세대인 한국의 젊은 층들도 영역된 고전문학을 쉽게 접하게 됨으로써 국제화, 세계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문화와 문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교육 현장에서 의미 있는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문의 경계를 넘어 국문학과 영문학자들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한국 고

전문학이 지닌 매력을 해외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는 번역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고전문학의 번역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홍규 편, 『한국문학 번역서지 목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8. pp.1-930.
- 박진임,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번역의 문제: 시조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8권 1호, 2007, 봄. p.153.
- 오윤선, 「〈허생전〉의 영역본을 통해 본 한국 고소설 영역의 문제」, 『고소설연구』 17집, 2004. 6. pp.193-224.
- 오윤선, 「한국 고소설 영역의 양상과 의의」, 고려대 박사논문, 2005. pp.1-180.
- 오윤선, 「〈춘향전〉 영역본의 고찰 — 삼입시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3집, 2007. 6. pp.401-422.
- 이성일, 「우리 고전 번역의 필요성」, 『민족문화연구』 31집, 1998. pp.315-323.
- 장효현, 「한국 고전소설 영역의 제 문제」,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 출판부, 2002. pp.703-742.
- 존 프랭클, 「새로운 시작: 북미 대학의 한국문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9집, 2006. pp.155-168.
- 최경열, 「한문번역에 대한 몇 가지 견해: 『한비자』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8호, 2007. pp.445-453.

ABSTRACT

The Necessity for English Translation of Classical Korean Narrative
Literature and Plans for Its Implementation

Jeung, Sun-Hee

The present paper asserts that classical Korean narrative literature needs to be translated into English to help English-speaking readers understand Korean values and recognize the fine quality and originality of Korean literature. The paper also emphasizes that the translation project can be performed most efficiently when scholars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take a leading role.

The translation project is meaningful because it will help foreign readers who do not have much knowledge on Korean academic achievements or its culture to understand the custom, etiquette and values of the country. In addition, translated literary works will give them an opportunity to share feelings Koreans in the past felt toward love, family, life's paths, poverty, greed, bravado, wars and the like—that is, feelings universal to human beings—by the medium of stories. In this sense, more works of classical Korean narrative literature should be translated, and systematic plans are needed to accomplish this task. Finally, a prerequisite for an accurate and adequate translation is in-depth knowledge on classical Korean narrative literature: its original expressions, descriptions, themes, questions, implications of or meanings symbolized by names of people or places, and phrases with authentic precedents.

Key Words Classical Korean Narrative Literature, English Translation of Classical Novels, English Translation, Translation, Annotation, Foreign Readers, International Publication

논문투고일 : 2007. 9. 30.
심사완료일 : 2007. 10. 31.
게재확정일 : 2007. 12. 5.